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및 갈라디너 개최 결과**

**I. 제1회 국제학술회의**

1. 회의 일시: 2016년 11월 30일~2016년 12월 2일
2. 회의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3. 주최기관: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4. 주관기관 : 서울대 일본연구소
5. 후원기관: 한일경제협회, 대한민국 외무부, 일본국제교류기금
6. 참가자: 250여명,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명단 별첨  
한국)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등 79명  
일본) 고마쓰 가즈히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장 등 80명  
중국) 서일평 북경외국어대 일본연구소장 등 54명  
대만) 서흥경 국립대만대학 일본연구소장 등 25명
7. 회의 주제: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연구기관, 학회 콘소시엄으로서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구축 및 이후 비전 논의
8. 회의 개최결과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는 동아시아 내 일본연구자들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족된 단체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약 40여개 일본연구기관 및 학회가 협의회의 공동참여기관으로 가입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이번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제 1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총 50여개 패널이 다양하고 심도있는 일본연구의 현황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기능.

① 동아시아 지역 일본연구기관, 학회의 교류 필요성: 학제적 접근을 기반으로 동

아시아의 차세대 일본연구자 육성 및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  
 ②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동아시아의 유력 일본연구기관, 학회가 각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여 참가 & 매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중 한 지역에서 연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

■ 일본 경제관련 패널 내용 정리: 총 5개 패널

구분	패널 주제 및 발표 제목	발표제목 및 발표자
공동패널 F-1 11월 30일 17:00~18:30 (109호 회의실)	아베노믹스의 젠더분석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회자 : 신기영(申琪榮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발표자 : 아다치 마리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 「아베노믹스에 있어서의 금융배제/포섭과 젠더」 카나이 카오루(金井薫. 사이타마대학) : 「아베노믹스에 있어서의 여성활용정책과 여성고용에 대한 임팩트」 모토야마 히사코(本山央子,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 「외국인 가사노동자 수용과 「가족」의 재구성」
F-2 12월 1일 09:00~10:30 (109호 회의실)	일본학을 위한 디지털 휴머니티 교토대학 지역연구종합정보센터	사회자 : 키시 토시히코(貴志俊彦, 교토대학지역연구통합정보센터) 발표자 : 하라 소이치오, (原 正一郎, 교토대학지역연구통합정보센터 ) 야마타 타이조(山田 太造, 동경대학사료편찬소 카메다 아키히로(亀田 堯宙, 교토대학지역연구통합정보센터) 고토 마코토(後藤 真,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부) 토론자 : 나카야마 타이쇼(中山 大将, 교토대학지역연구통합정보센터)
F-3 12월 1일	한중일의 국제개발협력 -새로운 아시아형 모델의 모색	사회자 : 김웅희(KIM Woong Hee, 인하대학국제통상학과 ) <b>【개회사】</b> :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아

<p>10:50~12:20 (109호 회의실)</p>	<p>(재) 미래인력연구원,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p>	<p>쓰미국제교류재단사무이사·SGRA대표) 【보고1】「중국적 ODA의 전개 : recipient의 시점 이 은민, (李 恩民, 오비린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군) 【보고2】「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적 모델의 가능성 모색 : 북동아시아 공여국간의 수렴과 분화」 손혁상(孫 赫相, 경희대학공공대학원원장·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회장) 【소(小)보고 및 토론 1】「일중 양국의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비교연구」(가제) 리 코테츠(李 鋼哲, 호쿠리쿠대학미래창조학부) 【토론 2】김태균(金 泰均, 서울대학국제대학원) 【자유토론】아쓰미재단SGRA 및 미래인력연구원 관련 연구자 【개회사】: 서재진(徐 載鎭, 미래인력연구원 원장)</p>
<p>F-4  12월 1일 13:30~15:00  (109호 회의실)</p>	<p>동아시아의 정경관계변화와 산업협력의 움직임  국립대중과기대학 일본연구센터</p>	<p>사회자 : 리리런(黎立仁, 국립타이중과기대학·일본연구센터) 발표자 1 : 나카오 사치오(中戸祐夫, 리츠메이칸대학·국제관계학부) 발표자 2 : 린관주(林冠汝, 진리대학·국제무역학과) 발표자 3 : 쯩야오펡 (曾耀鋒, 국립타이중과기대학·보험금융학과) 토론자 1 : 리리런(黎立仁, 국립타이중과기대학·일본연구센터) 토론자 2 : 리쯔야오(李嗣堯, 국립타이중과기대학·일본연구센터) 토론자 3 : 린관주(林冠汝, 진리대학·국제무역학과)</p>
<p>F-5  12월 1일</p>	<p>일본사회의 노동과 희망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p>	<p>사회자 : 겐다 유지(玄田有史,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발표자 1 : 아리타 신(有田伸, 동경대학</p>

15:20~16:50 (109호 회의실)		사회과학연구소) 발표자 2 : 나카무라 나오후미(中村尚史,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 토론자 1 : 신광영(申光榮, 중앙대학교) 토론자 2 : 선재원(宣在源 평택대학교)
---------------------------	--	---

■ 패널 내용 요약

① 아베노믹스의 젠더분석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본 패널의 목적은 제2차 아베정권의 경제성장전략으로 주창된 「아베노믹스」 정책의 구체적인 영향을 젠더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에서 「여성의 활약」은 성장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로서, 다시 말 해 「여성이 빛을 발하는 사회」의 형성이 아베노믹스의 정책 목표 중 한 가지로 꼽혀왔다. 아베노믹스 실시 후 4년이 경과하는 동안, 아베노믹스는 여성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베노믹스의 여성활약 추진정책은, 뿌리 깊은 일본의 젠더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하였는가? 본 패널의 세 가지 발표는, 각각 금융·고용·가족내의 재생산을 주제로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②일본학을 위한 디지털 휴머니티 (교토대학 지역연구종합정보센터)

오늘날 일본학을 포함한 모든 인문사회과학연구는, 정보학의 예지(叡智), 연구 방법, 혹은 그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패널에서는, 일본에서 디지털 휴머니티의 최첨단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주요 기관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일본학연구와 관련된 문리협동형(文理協働型) 국제적 연계의 방향성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③한중일의 국제개발협력- 새로운 아시아형 모델의 모색 ((재) 미래인력연구원,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

일본에는 경제발전과 에너지 절약·환경의 양립, 방재(防災),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등 과제선진국(課題先進国)만이 보유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있다. 압축성장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의 경험도 아시아 지역에서, 장차 발전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도 급속도로 원조량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국제 여론을 의식하면서 대외 원조를 더욱 충실하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후 일중한(日中韓)은, 이러한 지식자산을 활용하면서, 3개국의 절차탁마를 통해, 개발원조의 양과 질 모두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포럼에서는 일중한(日中韓)이 협력·경쟁하면서 함께 진화할 때, 개발협력의 「아시아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architecture)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야에 넣고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패널에서는 2016년 2월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5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앞으로의 일한 국제개발협력 : 공진화 아키텍처의 모색」, 2016년 10월 1일 키타큐슈(北九州)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미래회의의 자주(自主) 세션 「아시아형 개발협력의 이상형을 탐색하다」에서의 논의를 계승하여, 일본과 한국에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개발원조의 방향성을 고찰한다.

**【일한동시통역 제공】**

④ 동아시아의 정경관계변화와 산업협력의 움직임 (국립대중과기대학 일본연구센터)

동아시아는 지역경제의 통합이나 TPP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 지역에서의 국제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패널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일본과 대만의 생산연계에서부터 지역경제의 긴밀화를 탐구하는 한편, 미중 대립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일한대(日韓台)의 대응을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⑤ 일본사회의 노동과 희망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본 패널에서는 오늘날 일본 사회 속 희망(希望)의 모습을 「노동」을 축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모두에서는 사회를 맡은 겐다(玄田)씨가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회와 희망의 관계를 고찰하는 「희망학」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아리타(有田)씨의 보고에서는 「일본사회의 비정규 고용은 다른 사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격차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논점으로 주목을 받는 비정규고용 문제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는 시점, 또한 사회학의 시점에서, 그 성격을 밝혀본다. 나카무라(中村)씨의 보고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이와테현(岩手県) 카모이시(釜石) 지역에서

에서 과감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해기업 오노식품(주)에 주목하여, 그 부흥의 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피해지역에서의 「희망의 재생」을 생각해본다. 그와 함께, 특히 재해복구의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의 변화가 피해지의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고찰한다.

## II. 갈라디너 (GALA DINNER)

1. 일시: 2016년 11월 30일 오후 7시~9시
2. 장소: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3층 대연회장
3. 주최기관: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4. 후원기관: 한일경제협회
5. 참가자: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제 1회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일본연구자 약 300여명) 및 관계자
6. 목표 및 의의: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제 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동아시아 각지의 일본연구자들 간의 실질적 교류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7. 갈라디너 개최결과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발족 및 제 1회 국제학술대회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패널발표와 더불어 전 참가자가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교류, 향후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폭넓게 타진할 수 있었음.

- ① 개별 패널을 넘어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일본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유력 일본 연구자들간의 교류 및 의견 교환
- ② 한일경제협력의 중요성 홍보: 학술분야에서의 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한일경제협력의 비전 제시(@@@ 부회장 축사)
- ③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협력의 가능성 증대: 한국과 일본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내 경제협력 모색